

# “지구촌 하나로 묶는다”

ACE 국제 심포지엄, 시애틀 퍼시픽대서 개최  
한국 한림대 안동규 교수 패널로 참석 발표도

언어와 문화교류 등을 통해 지구촌을 하나로 묶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다.

국제적인 교류를 위해 지난 1974년 창설된 미국문화교류협회(ACE· 회장 데이비드 우드워드)가 지난달 23일 시애틀 퍼시픽대학(SPU)에서 ‘창립 35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ACE는 ‘Associates in Cultural

Exchange’의 약자로 시애틀에 기반을 둔 비영리기관이며 각국의 학교, 사업체, 기관 등의 국제교류를 위한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는 역삼동에 지부가 있으며, 컨설턴트 자격으로 하워드 권 박사가 시애틀과 LA를 다니며 한·미 양국 교류에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상무부 소속 오영희 선임상무관이 미 정부차원에서 이들의 활동

을 돕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의 한림대 안동규 대외협력처장 등 각국 20여 명의 교수들이 패널로 참가했다.

SPU 샘 셰퍼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글로벌 교육과 효과적인 기회 제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서 안동규 교수는 지난 1981년 자신의 듀크대 유학시절을 예로 들며 언어교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안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뒤 “바로 브로큰잉글리시”라고 자문자답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는 콩글리시, 일본에서는 정글리시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라며 “국제적인 교류가 제대로 된 언어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샘 셰퍼드 교수는 “지난 1976년 일본에서 영어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데, 당시 미국은 개인적인 교육을 중요시하는 반면 일본은 팀워크를 중시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바가 있다”며 “지구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언어의 장벽뿐만 아니라 문화의 장벽 역시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계인 케런 코다마 시애틀 공

# PC BANG

T1 HIGH SPEED INTERNET

## INTERNET GAME

- Star Craft
- World of War Craft

- War Craft
- Online Games

- Diablo
- and Others

### 50 High Performance Computers

Sets

PC REPAIR - DESK TOP, LAP TOP COMPUTERS  
 S/W PROBLEM - VIRUS, SPY WARE REMOVE

## 253-835-5780

33310 Pacific Hwy. S. # 407  
Federal Way, WA 98003



한림대 안동규 교수(왼쪽에서 2번째)가 심포지엄이 끝난 후 미 상무부 오영희 선임상무관(왼쪽), ACE 데이비드 우드워드 회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립학교 국제교육행정관도 “언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수학, 문화 등 종합적인 교육이 글로벌 시민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지역 열린 소셜 교육기관 타타나 실리나-스페디 부사장 역시 “러시아는 모든 지역이 흡수 러시아인들은 술만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꽤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국제적인 교류를 통한 교육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아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애틀 지역 미 주류상공인 80여 명은 내년 ACE를 통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재영 기자

## 최고의 품질과 가격!

P & C

\$99 per Slab

### Granite Sink Vanity Tile Faucets

그레니트 싱크대 세면대 타일 수도꼭지

## 이번주 스페셜

# \$5,900 or \$295 per Linear Ft.

## 10X10 부엌

-프로페셔널 팀 디자인
-빠른 서비스 설치

## 9가지 스타일 중 선택

- Cabinet over Refrigerator + Range
- Two 2'x8' emerald green granite countertop or equivalent
- 스테인리스 스틸 더블 싱크
- Oak, Maple, Cherry, & Birch Finishes

월-토: 9am-6pm 일: 휴무  
소름에 구경 오세요!

**Call 503.999.5336**

**Tel 253.722.1070**

**Fax 253.722.1071**

4001 100th St. SW Lakewood, WA 98499